

창작의 좋은 결과는 열린 창작환경에서 나온다

-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유영희 음악평론가

culture | art

바닷가에 즐비하게 서 있는 소위 공공 연수 시설들의 대부분은 한 해의 반 이상을 비워둔 채로 지낸다. 레지던스 시설이라고 해서 반드시 새로 지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그것이 최고의 시설이 아니라 마음껏 연습하고 창작할 공간을 목말라하는 음악가들이 얼마나 많은가. 비워진 채 먼지만 쌓여가는 공간들이 나라 안에 산적해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대안만을 찾기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는 집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진리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예술이 과연 '선택받은 소수'의 '선택받은 산물'인가

얼마 전 모 방송사의 TV 프로그램에서 매우 가정 형편이 어려워 피아노를 살 수 없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그 여학생은 피아노 치는 것을 매우 즐거워 하여 틈틈이 학교 등에서 연습을 해왔지만, 이제 전문적인 피아니스트의 길을 걷고 싶어 고민하던 중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자신들만의 일도 벅차 피아노를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던 차에 방송사에서 그 일을 대신해 주기로 한 것이다. 허름한 집의 방에는 간이 방음장치가 시공되었으며 반짝거리는 새 피아노가 놓여졌다. 뿐만 아니라 무료로 지도 받을 수 있는 선생님까지 연계해, 한 여학생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을 감동적인 멘트와 함께 소개했다.

이를 보는 시청자는 최근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함께 나누기'가 내 주변에 도래했음을 느끼고 마치 자신의 일인 양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불특정 소수'에게 주어진 행운을 넘보려 하지 않는다. 한낱 부러운 일의 하나일 뿐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기'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찾아갔을 행운이 결코 내 몫과는 상관없음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두려워할, 혹은 누릴 수 있는 그 바람(권리)들이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유리(遊離)된 채 - 마치 로또에 당첨된 듯한 - 극소수의 사람들은 '부러워하기'로만 끝난다면 이것은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예비하고 있는 작금(昨今)을 돌아볼 때, 마스크는 우리의 '2만 달러 비전'이 매우 낙관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의 기대치가 매우 높다고도 언급한다(단순히 평균소득으로만 이야기할 때

우리의 현실은 미국과 일본의 1980년대 중·후반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개인의 소득 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평균치를 거론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도 물론 모르는 바 아니나, 여러 가지 극단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배제하고 생각할 때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었다는 것은 경제·사회·환경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는 어느 정도 '살만 해진'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일시에 분출하면서 환경보전과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동기가 분출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때이다. 그 실현 가능성의 여부를 떠나서 2013년을 2만 달러 달성의 시기로 잠정 기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그러한 분출은 무리한 것이 결코 아니다.

더불어 우리의 문화적 환경을 다시 돌아보는 것 역시 당연한 귀결이라는 생각이다. 우리의 5천 년 역사는 문화의 캘린더와 그리 무관하게 흘러오지 않았다. 음악과 미술, 곧 예술과 생활이 매우 밀접하게 서로를 자극하며 오랜 세월을 흘러온 것이다. 그러던 중 '생활 속의 문화'가 '공영문화'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은 서양예술의 보급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서양예술이 우리에게 보급된 지도 벌써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이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서양예술의 한 사조가 150년 내외였던 것을 기억하시라), 이와 시기를 같이해 국악 또한 본격적으로 무대에 올려지기 시작해 현재에 이른다.

그 사이 우리가 배출한 음악가들은 세계 각국의 음악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으며, 우리가 만들어낸 음악들도 그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1980년대에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피아니스트 서해경을 비롯, 백건우, 김영욱, 강동석, 정경화와 정트리오, 그리고 젊은 세대의 장영주와 장한나,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우리의 천재적 연주자들이 국내외의 무대에서 우리의 역량을 한껏 과시해 왔다. 연주 분야에 비해서 좀 늦은 편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작곡가들 또한 서구 무대에서 그 작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작곡가 진은숙이 그라베마이어 작곡상과 쇤베르크 음악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현재 베를린 도이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 작곡가로 재임하고 있어 우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 있다. 이는 물론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 음악계의 쾌거이기도 하다. 이처럼 예술가 개인의 영예가 나라의 영

광으로 이어지는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되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 글의 서두에서 선택받은 소녀의 예를 들었지만 예술이 과연 '선택받은(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소수'의 '선택받은 산물'인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전제하려니와 누구나 다 환경이 주어지면 천재성을 발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1만 달러 시대를 지나면서 선두 몇몇의 부(富)가 아니라 평균이거나 그 이하에 해당하는 다수의 삶의 질까지도 높여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요(要)는 연주가와 그 연주환경의 문제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연습공간의 부재는 작품활동에 치명적 영향 미칠 수도

단연컨대 연주하지 않는 음악은 없다. 존 케이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 〈4분 33초〉에는 아무 소리가 없다. 피아노를 위한 작품이기는 하지만 피아니스트는 아무 연주도 하지 않고 무대 위에서 4분 33초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퇴장한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이렇듯 소리 내지 않는 음악조차 연주를 필요로 한다.

전국의 공연장에서는 크고 작은 콘서트들이 날마다 열리고 있다. 그 편성도 다양해 관현악 연주가 있는가 하면, 실내악과 독주, 그리고 뮤지컬 등 형태를 규정짓기 힘들 정도이다. 이 다양한 콘서트의 가장 명확한 공통점은 '음악가의 연주'와 '청중의 감상'이라는 양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정이 있다. '생산'의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연주를 위한 '연습'의 과정이라 하겠다. 훌륭한 공연장이 필요한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질 좋은 음악을 양산해내는 지름길이 공연장 확보의 문제라고만은 생각하지 않는다.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에 버금가는 오페라하우스를 서울에 만드는 등의 일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음악을 생산해내는 과정에 대한 배려를 잊고 있지나 않은지 염려가 앞선다. 많은 수의 솔리스트들과 앙상블, 그리고 오케스트라들은 자신의 스튜디오를 가지고 연습을 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 바로 창작 작품을 연주할 경우이다.

1980년대 이후 꾸준히 발전해 온 작곡계는 2005년 현재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협회만도 40여 개를 훌쩍 넘어서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국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해오는 소규모의 단체까지 합하면 그 수는 추산하

전업 작곡가의 경우에 연습공간의 부재는 작품활동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은 더 나아가 작품의 편성을 소극적이게 한다는 점으로 이어진다. 연주자에게 지불해야 할 연주료에 연습공간마저 유료로 대여해야 한다면 마음놓고 큰 편성의 작품을 작곡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유료로라도 연습실을 섭외할 수 있는 환경은 여의한가라는 문제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

Musical Composer

기 힘들 정도이다. 연주회는 물론 이들의 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정기작품발표회에 비정기적인 특별 연주회, 그리고 외국 작곡가들의 초청 연주회에 국내·외를 아우르는 작곡 페스티벌 등을 합산하면 연간 작곡, 연주되는 창작 작품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다. 그 편성 또한 실로 다양하다. 독주악기를 위한 작품에서 관현악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성의 작품들은 저마다 길고 짧은 연습과정을 통해 무대에 올려지게 된다.

이때 편성이 작은 작품들의 연습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으나, 비교적 큰 편성의 앙상블이나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을 연습할 때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연주자의 확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련만, 연습 장소의 확보에 이르면 더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작곡가는 작품을 탈고한 뒤 연주를 위해 일일이 연주자를 섭외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다음은 많은 인원이 들어가 연습할 공간의 섭외가 기다리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연습이 대학교의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많은 수의 작곡가가 대학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작곡가가 대학교수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어려움이 적은 편이다. 대학의 연습실이나 실내악실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편성의 작품을 연습할 경우엔 연주홀까지도 어렵지 않게 이용 가능하다. 시간강사인 경우에는 이 역시 그리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인지라 '눈치껏' 비어 있는 시설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도 그나마 이는 형편이 나은 편. 전업 작곡가의 경우에 연습공간의 부재는 작품활동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은 더 나아가 작품의 편성을 소극적이게 한다

는 점으로 이어진다. 연주자에게 지불해야 할 연주료에 연습공간마저 유료로 대여해야 한다면(그것도 빌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마음놓고 큰 편성의 작품을 작곡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작곡 발표회를 가보면 대부분 적은 인수의 편성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유료로라도 연습실을 섭외할 수 있는 환경은 여의한가라는 문제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작은 편성, 혹은 솔로 악기를 연습하기 위해 마련된 유료 연습실은 꽤 있는 편이나 이는 실상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편이다 (대부분 개인 레슨이나 지방 출신의 수험생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정작 필요한 큰 규모의 연습실은 몇몇의 악기사와 규모가 작은 연주홀들을 들 수 있는데, 필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큰 홀을 구비해 놓은 악기사에서조차 흔쾌히 큰 편성의 연주 연습을 즐겨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이유로는 작은 연습실과의 사용료의 차이는 크지 않으면서 주차공간의 확보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그들이 부가한 더 어처구니없는 이유에는 '시끄러워서'라는 항목도 있다. 이 상식 이하의 말에 대한 부연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 A 악기사에서는 그나마 연습실을 3시간 사용하는 데 30만 원의 요금이 책정되어 있었으며, B 홀의 부속 연습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5만 원의 비교적 '저렴한(?)' 요금이 책정되어 있다. 샤콘느홀, 오퍼스홀, 태평홀, 부암아트홀, 클라비어홀, 국제스튜디오, DS홀 등 소규모의 연주홀에서는 마스터클래스나 연습을 위해 무대를 빌려주기도 하지만 한두 번의 단발적인 연습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이 역시 연습 공간의 부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복합문화시설을 이용한 일본의 연습실 사례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습실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소규모 연습실 역시 부족해서 임대 연습실이나 그 외의 시설들을 활용하고 있다. 악기사나 사설학원에서 빌려주는 연습실 등은 우리와 다를 바 없으나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대여용 연습실만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그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요금은 피아노의 종류나 방음 장치의 여부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전문 연주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그들에게는 있다는 점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 하나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복합(Complex) 문화센터 등에 연습실을 마련해 일반에 대여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나라나 시(市), 혹은 구(區)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연습실을 마련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닉 시티(Sonic City)'를 들 수 있겠는데, 도쿄 근교의 사이타마현(埼玉縣)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연장과 회의실, 전시실, 시민을 위한 이벤트실, 그리고 각종 연습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닉 시티'는 사이타마현을 대표하는 대규모 복합문화시설이다. 우리에게서 이런 건물에 연습실을 두는 개념이 생소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당연한 구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콘서트홀과 회의실, 그 외의 공간이 모두 무언가를 창조하고 창조의 결과물을 드러내는 곳이라면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연습실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용시간은 시간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역시 연습실의 크기와 설비에 따라 3~4시간당 1만5천 원에서 5만 원까지의 요금이 책정되어 있다.

그 시설은 A급으로, 물가 대비 이용료는 오히려 저렴한 편이라 하겠다. 또, 시가현(滋賀縣)에 있는 '오우미(淡海) 네트워크 센터'에서도 현민(縣民)들의 복지를 위해 여러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 안에 음악활동을 위한 연습실을 갖추고 있다(이 시설은 놀랍게도 NPO라고 불리는 민간비영리 조직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수의 사설 연습실이 존재하지만 공공시설은 훨씬 더 많은 수를 자랑한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설들이 '어디에나'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한다. 일명 '문화센터'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는 대부분 연습실이 갖춰져 있다고 보면 된다. 미타카(三鷹) 예술문화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미타카예술문화센터'에는 대형 콘서트홀과 리사이틀 홀, 그리고 대표적인 부대시설로 일반에게 대여되는 연습실이 마련되어 있다. 이 역시 공공시설이니 만큼 이용료의 저렴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3~4시간당 8천 원에서 4만 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다. 후츄시(府中市)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후츄의 숲 예술극장(府中の森芸術劇場)'에는 오르간까지 갖춘 연습실을 대여해 주고 있다. '치가사키시(茅ヶ崎市)문화회관' '후지시(富士市)문화회관' '제로시어터(ロゼシアター)' '시바타시(新發市)시민문화회관' '카나자와시(金澤市)문화창조홀' 외에도 전국 어디서나 시설 좋은 연습실들을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제 음악제가 열리는 장소를 평소에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임대해 주기도 한다. 그 예로 '기리시마(霧島)국제 음악제'가 열리는 '기리시마 국제 음악홀'의 연습실들도 유료로 개방되고 있다. 각 지역의 청소년 센터에도 어김없이 연습실이 마련되어 있다. 세계적 규모의 콘서트홀을 가지고 있는 '도쿄 오페라시티'의 연습실마저도 개방되어 있다면, 드러내 놓고 부러워할 만하다. 리허설룸으로도 사용되지만 일반 사용객들을 위해 유료로

개방되고 있다. 오전·오후로 사용시간이 나뉘어 각기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니 이들로서는 비싼 편이었으나 우리나라의 악기사 부설 연습실의 세 시간 사용료가 30만 원인 것을 생각한다면 비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코리아 '뮤직파크' 연습실

[요금표]

音樂練習室	午前 9~12時	午後 1~5時	夜間 6~10時	全日 9~22時
第1 音樂練習室(130m2)	2,500¥	3,000¥	3,700¥	8,000¥
第2 音樂練習室(53m2)	1,500¥	1,700¥	2,000¥	4,500¥
第3, 4 音樂練習室(各25m2)	800¥	1,000¥	1,300¥	2,500¥

일본이 이렇게 연습실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는 우리와는 다른 이유가 있다. 일본에는 민간 연주단체가 많다. 실내악 앙상블뿐 아니라 합창단, 취주악단, 민간 오케스트라 등 연주를 취미(혹은 그 이상)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우리와 비교해서 많은 편이다. 작곡계를 본다면 음악대학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많은 수의 작곡가가 전업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의 민간 연주단체들은 신작(新作)들을 무대에 올리기를 즐겨하며, 그래서인지 위촉되는 작품의 수도, 대상도 다양하다. 모든 일들은 맛물리게 마련인지라 이러한 음악적인 환경이 전업 작곡가와 창작작품의 양산을 돕고, 이 작품들은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해 이 시대의 문화를 이루는 한줄기로 사회에 환원된다.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되어야

창작활동이 좋은 결과로 사회에 환원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적절한 환경이 요구된다. 단순히 연습공간만이 이의 해결방안이라고만 볼 수는 없으나,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더 나아가서 연주자와 작곡가들이 중·장기로 체류하면서 연습과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레지던스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밴프센터(Banff Center)'는 예술가들의 신청을 받아 한시적으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고도의 집중된 창작품과 그 연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하겠다.

유럽이나 미국, 가깝게는 일본 등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외국에만 있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소수의 작곡가들을 지원해 주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을 뿐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국내에 이러한 시설을 마련해 운영한다면 더 많은 기회를 여건이 불충분한 작곡가들에게 배분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나날이 연주 무대만 많아지는 현 상황에서, 이제는 무대 뒤의 상황까지도 보살펴야 할 시기가 왔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일본의 국·공립 문화재단이

나 문화센터만도 100군데 이상, 그리고 주요 콘서트홀을 40여 군데 이상, 그 외에도 다수의 복합시설들을 검색해 보았다. 일본의 국·공립시설의 거의 80% 이상의 시설이 민간에 개방되고 있다는 점은—너무나 당연하면서도—우리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불어 온·오프라인 상으로 조사한 우리나라의 실태는 부끄러울 만큼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것이었다. 이를테면 인터넷 검색 창에 교육문화회관이라고 입력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이트가 '호텔 교육문화회관'이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교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는 교육과 관련된 시설이 아무것도 없다. 대강당이 있긴 하지만 비어 있는 날이 더 많으며 그 부대시설 역시 개점휴업일 때가 더 많다. 설립취지가 무엇이든 '교육'과 '문화'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시설임을 표방한다면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부산의 '을숙도 문화회관', 서울의 '노원문화예술회관',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등의 극소수의 시설만이 그나마 적은 수의 연습실을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멀다. 공간, 그것도 연습을 위한 공간을 만들자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뜬금없는 제안인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센터들을 검색한 후, 일본의 청소년 센터를 역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다. 한국의 청소년 시설의 대부분이 도서관, PC실, 그리고 음악 감상실을 우선으로 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일본의 청소년 센터에는 연습실, 연수실, 강당 등 빈 공간이 많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의 커뮤니티가 개인적이고 한정적인 것에 비해 그들에게서는 좀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공장소에 PC실이나 공원을 조성해 여가를 선용할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예술가)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창작환경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한다. 주어진 무대를 그저 바라보는 것이 관객의 몫이라 치부한다면 그것은 '소비자'라는 개념에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다.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것을 알면서 전환하지 않는 것은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관객이 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것을 알면서 전환하지 않는 것은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관객이 한 발 더 다가올 수 있고
전문가의 창작환경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때가 왔다. 아니 다소 늦었을 수도 있다.

Conversion

발 더 다가올 수 있고, 전문가의 창작환경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때가 왔다. 아니 다소 늦었을 수도 있다.

연주홀들의 '시설 현황' 난에서 그 홀의 시설만을 펴려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시설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까지 첨언(添言)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새로 땅을 파서 연습공간을 짓자는 말이 아니다.

일본의 어느 연주홀(동급)과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으며, 적지 않은 경우 더 비싼 대관료를 받는 우리나라의 홀들을 떠올릴 때, 이제는 무대와 무대 뒤, 그리고 공연과 연습이라는 양자의 조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임박했다는 생각이다. 시민을, 국민을 위해 지어졌다는 수많은 문화시설 역시 그들만의 공연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주체를 사용자를 위한 것으로 다시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최소한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들은 조기축구회를 위한 운동장 대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그들의 강당과 빈 공간을 개방해야 할 것이며,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종교 시설들도 그들의 문을 활짝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바닷가에 준비하게 서 있는 소위 공공 연수 시설들의 대부분은 한 해의 반 이상을 비워둔 채로 지낸다. 레지던스 시설이라고 해서 반드시 새로 지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그것이 최고의 시설이 아니라도 마음껏 연습하고 창작할 공간을 목말라하는 음악가들이 얼마나 많은가. 비워진 채 먼지만 쌓여가는 공간들이 나라 안에 산적해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대안만을 찾기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는 집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진리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서두에 언급했던 '한 소녀의 어느 날 갑자기 가지게 된 환경'은 진정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이를 준비해 왔다면, 그 여학생은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기 전에 자신이 헤쳐 나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상이면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회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을 양립시켜 나갈 조건의 최저치가 충족된다고 한다. 보이지 않는 부분의 소중함을, 더불어 결과만이 아닌 과정의 중요성을 깨우칠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선진과 동위(同位)에서 병진(並進)할 수 있는 저력을 갖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